

아시아·태평양 NGOs 운동 방향

김 정 현(慶熙大學校 教授)

1991년 1월의 第10回 日本環境大會議에서 아시아·太平洋NGOs環境會議開催가 決定되었다. 第10回 日本環境會議에 參席한 泰國의 國立 Chulalong Korn大學의 教授이며 Siam Eco Club의 會長인 Suraphol Sudara博士가 第1回 亞細亞·太平洋NGOs環境會議을 Bangkok에서 開催하겠다고 提案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2個月前인 1990年 11월에 日本京都에서 『亞細亞의 環境問題와 日本의 責任』이란 題目으로 日本環境會議後援下에 京都府生活協同組合聯合會가 開催한 심포지움에서 本人도 亞細亞環境委員會構成을 主張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1年 12月 7~8日 Bangkok의 Chulalong Korn大學에서 第1回 亞細亞·太平洋NGOs 環境大會가 開催되었습니다. 이 會議은 Siam Eco Club와 日本環境會議가 共同主催하였으며, 登錄出席者는 92名, 8個國에서 參席하였습니다. 基調演說은 日本의 宮本憲一博士(日本大阪市立大學商經學部長)가 亞細亞資本主義와 環境計劃, Suraphol Sudara博士(泰國 國立-Chuladong Korn大學教授)가 “政府와 NGOs”를 各各 發表하였습니다. 此外에 各國代表들이 自國內 實情에 대해서 約20編을 報告하였습니다. 第1回 亞細亞·太平洋NGOs 環境會議의 特徵은 地球環境保全에 있어서 亞細亞의 環境保全이 가장 重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NGO의 活動이 必要하다는 것을 確認하였으며 亞細亞의 環境問題에 있어서 日本의 政

府와 企業의 責任이 莫重하다고 追窮하였습니다. 또한 日本國內의 公害問題解決을 위하여 努力한 日本의 住民運動의 敎訓에 대해서도 높 이 平價하였습니다. 日本에서 參加한 大氣汚染患者의 報告는 泰國의 新聞·TV에서 크게 報導하였습니다. 끝으로 “Bangkok宣言”이 採擇 發表되었습니다. 本人도 이자리에 參席하였으며 第2回 亞細亞·太平洋 NGOs 環境大會開催地를 서울로 하자고 提案하여 서울로 定하게 되었습니다.

서울會議를 1992年 12月 7~8日에 開催할 豫定이었으나 때마침 大統領選舉가 있어 1993年 3月 27~28日에 開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主催는 서울 Eco Club, Siam Eco Club, 日本環境會議의 3個國이며 場所는 Ramada Olympia Hotel였으며 參加者는 延500餘名에 이르렀습니다. 日本에서 大舉78名이 參加하였으며 泰國,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香港,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印度, 濠州, 韓國의 10個國이 參加하였습니다. 서울會議의 Issue는 “Rio Summit後의 亞細亞·太平洋NGO의 課題”로서 Rio環境Summit에서 提起된 “Sustainable Development”의 길을 亞細亞에서도 推進하기위해서 NGO의 役割을 찾아보자는데 그 目的이 있었습니다. 亞細亞의 環境問題의 多樣성과 深刻성이 明白히 드러났으며 世界最高의 Speed로 經濟成長을 繼倍하는 亞細亞地域에서는 環境政策이 뒤지는 傾向에 있으며 어느 나라나 大都市의 環境問題

는 共히 深刻하다고 認識하였으며 특히 多國籍 企業의 進出에 의한 環境政策의 責任이 크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環境破壞로 인한 被害實態에 대한 解明을 늦어지고 있으며 政府도 環境政策의 實效性이 매우 낮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被害의 實態를 明白하게 하기위한 情報의 公開, NGO相互間的 經驗交流의 重要性 등이 指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宣言”이 採擇되어 發表되었습니다. 그 內容은

1. 人間環境會議以後 環境과 開發에 關한 많은 國際會議가 開催되어 條約 設定書 合意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一連의 뜻을 받아 서울會議를 開催하였다.

2. 亞細亞·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環境問題는 各己 다르다. 그것은 各國이 經濟發展이 段階의 差가 反映된 것이다. 그러나 各國의 共通點은 첫째는 環境이 特性되더라도 經濟發展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政府施策, 두번째는 開發國으로 부터 開發途上國으로의 有害技術과 廢棄物의 移轉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傳統의 知識이나 生活樣式마저 威脅을 받고 있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最近의 Pattern은 長期的으로 持續可能的 發展으로 轉換되고 있다.

3. 持續可能的 亞細亞·太平洋地域의 對應에는 Agenda 21의 挑戰에 呼應하여 持續可能的 發展을 推進하고 이 地域의 環境管理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重要하다.

1) 우리의 國家 環境을 不問하고 서로 責任 分擔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協力만이 이들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環境管理의 政策決定에 있어서 地域水準이든 國家水準이든 地球水準이든 間에 持續可能的 發展의 Parameter의 範圍內에서 우리가 發展model을 檢證하고 再構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이들 水準에서 協力を 達成하기 위해서 자유스러운 情報交換, 情報에의 Access, 자유스런 Communication의 權利保障 등이 重要하다.

3) 우리는 經濟的 不均衡을 是正하고, 公

正한 去來를 保障하여 健全한 自然環境을 回復할 수 있게 積極的 努力을 하여 將來世代에 健全한 環境과 充分한 資源을 傳授하여야 한다.

4. NGO의 役割

NGO로서 政府나 產業界를 監視하고 市民이나 被害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遵法의 有効監視로 除去와 防止技術의 水準向上시키고 被害補償의 嚴格한 責任化와 持續可能的 發展에 어울리는 開發의 倫理가 確立될 때까지 生活方式를 確立하여야 한다.

5. 合意事項

1) 國家間的 協力增進을 위하여 “亞細亞·太平洋 NGO環境會議”를 設立하고 準備委員會를 發足시킨다.

2) 適法한 時期에 環境調査센터, 教育센터, 資源·生物센터, 情報技術센터, 政策센터 등을 設立하고 News Letter를 發行한다.

3) 開發途上國을 爲始하여 모든 國家를 援助하고 必要適切한 施設과 技術을 發展시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多樣한 形態로 進行되는 環境破壞는 地域的 次元에서나 國家的 次元에서도 人間生存의 基盤을 威脅하는 重大한 社會問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年 6月 Rio de Janeiro에서 開催된 所謂 地球 Summit에 있어서도 國家間的 利害對立때문에 明確한 地球環境保全策은 決定되지 않았습니다.

國境을 넘어선 環境破壞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國境을 超越한 對策이 必要합니다. 國家의 利害나 企業의 利害를 超越하여 眞實한 地球環境政策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國際機關의 構築뿐 아니라 地球的 規模에서의 市民에 의한 環境保全運動의 連繫가 至急한 狀況에 놓여 있습니다. 局部的 運動인 環境NGO의 國際的 Network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緊急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亞細亞·太平洋地域의 經濟가 急速히 成長하여 世界의 生産基地化되는 가운데 環境破壞가 이 地域에 集中的으로 進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現實을 直視할때 亞細亞·太平洋地域의

環境問題를 國家의 範圍를 넘어서 地域의 사람들이 共通의 問題로서 經驗을 交流하고 解決策을 討論할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必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第1回, 第2回 亞細亞·太平洋 NGOs環境會議에 이어서 今年 11月 18~19日의 2日間 日本京都에서 第3回 亞細亞·太平洋 NGOs環境會議가 開催되는 것입니다. 이 會議에서는 亞細亞·太平洋地域의 環境問題 環境政策에 보다 積極的인 提言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全體題目은 “亞細亞·太平洋地域의 經濟發展과 環境問題”로서 亞細亞·太平洋地域

에 있어서의 工業化와 都市化의 進展과 그것이 가져오는 環境破壞의 實態와 그 mechanism을 分析하여 專門家의 서로의 研究成果과 知見을 모아 被害者나 市民의 運動의 經驗을 交流하는 場이 되는 會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特히 亞細亞·太平洋NGOs環境會議의 正式發足과 亞細亞·太平洋地域의 國家間, NGO間의 相互協力과 援助및 情報交換의 綜合的 管理를 위하여 事務局을 두는데 첫 事務局은 서울에 두기로 合意한 바 있습니다.